

# LEE SANG KAP

2020년 지역작가조명  
이상갑 탄생 100주년 기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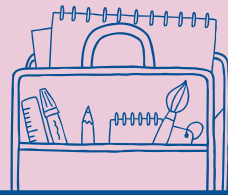
2020. 7. 2. - 9. 16. | 경남도립미술관 3F

《이상갑 탄생 100주년 기념》전은 이상갑(1920~1996) 작가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전시입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고향 마산에서 살며 작품 활동에 전념했던 이상갑 작가님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이상갑 작가님은 15세에 일본유학을 떠나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업을 마친 후 1946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경남 거창에서 8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부터 1996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마산에 정착해 작가와 교육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갑 작가님의 작품에는 도시의 정경을 비롯한 시골의 자연풍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해요. 특히 마산항과 어시장의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은 작가님의 가장 대표작이라 볼 수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친근한 모습을 통해 작가님은 소박한 삶과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완성해 볼까요?



1996,  
캔버스에 유채, 37.7 × 45.5cm



이 그림은 이상갑 작가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완성하지 못한 채 돌아가셔서 작품의 이름이 없어요.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직접 멋진 제목을 지어주세요!



미완성으로 남겨진 이 작품을 각자 자유롭게  
그려서 완성해볼까요?



다양한 색감에 대해  
알아보아요.



추산공원이 보이는 마산항, 1965,  
캔버스에 유채, 91 × 116.7cm

빨간색 계열의 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 파란색  
계열의 색은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다양한 색들을 표 안에 배치해 봅시다.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여러분들은 무슨 색을 좋아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작품의 풍경은 55년 전  
마산 항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채색해 볼까요?





##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화집을 보는 모녀, 1977,  
캔버스에 유채, 116.7 × 8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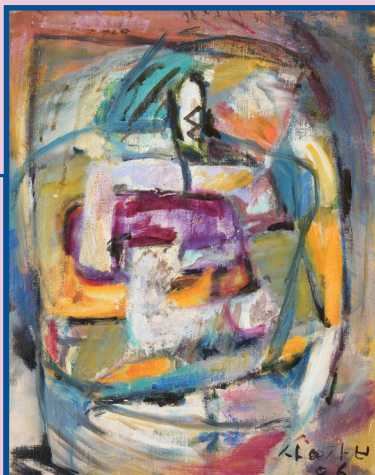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보이는 것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이 작품 제목인 '수전노'는 구두쇠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이 그림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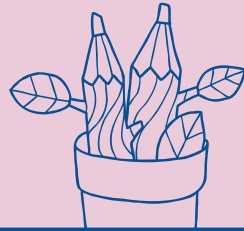
수전노, 1953,  
캔버스에 유채, 45.5 × 37cm

추상화의 경우 그림을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무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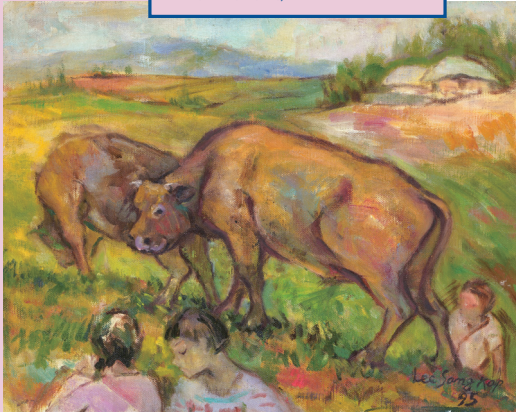


무제, 1996,  
캔버스에 유채, 40.9 × 31.8cm

기억을 재구성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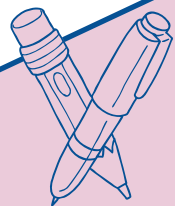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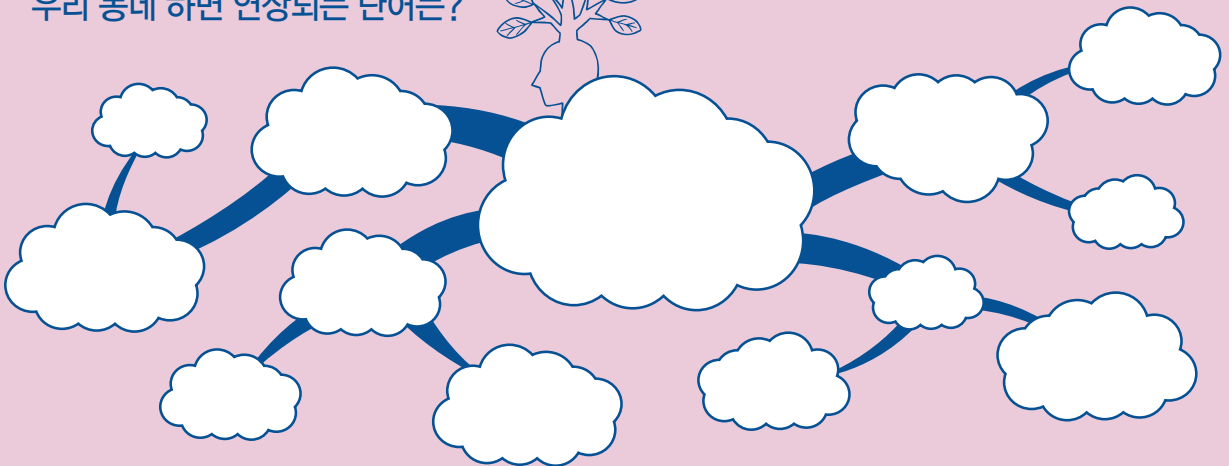


고향생각, 1995,  
캔버스에 유채, 31.8×4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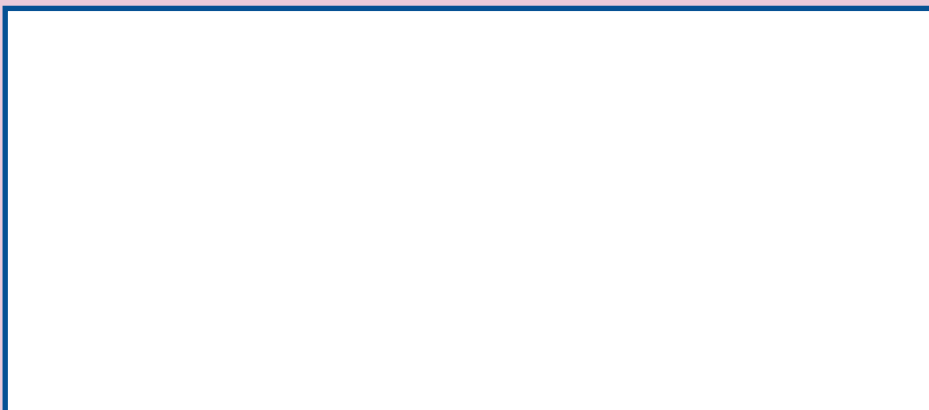


‘고향생각’은 이상갑 작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재구성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에는 어디에 살았나요?  
동네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볼까요?

우리 동네 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우리 동네에서의  
한 장면을  
그려볼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요.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어디에 그렸나요?

무엇으로 그렸나요?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든 이유를 적어볼까요?

내가 고른 작품을 간단히 스케치해 봅시다.